

01

아리수, 중국 쓰촨성에 가다

서울시, 지진 피해 지역에 페트병 수돗물 10만병 지원 쓰촨성 현지까지 직접 전달, 필요시 추가지원 예정

최 근 대지진으로 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쓰촨성에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지원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지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중국 쓰촨성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서울시의 '아리수' 10만병을 링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기증서와 함께 전달했다.

금번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중국 정부에 지진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하게 됐다. 중국사회공작협회(아동사회구조공작위원회)는 쓰촨성 지진 피해 아동들에게 보다 안전한 음용수가 필요하다고며, 피해지역의 고아원 등에 아리수를 공급했다고 전했다. 지원된 아리수는 500ml 10만병이며, 이는 트레일러 3대 규모로, 인천항을 출발하여 천진항에 도착, 쓰촨성 현지까지 직접 전달됐다.

중국 대지진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번 피해로 수많은

은 고아들이 생긴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전 세계의 자원봉사와 구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에도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를 위해 중국 대사관을 통해 3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페트병 아리수는 정부기관과 시 및 산하기관의 회의와 시민참여 행사 등에 배포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제공돼 왔다. 최근에는 단수나 재해지역에 긴급 지원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자 아리수 3만병이 긴급 지원돼 봉사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또 작년 9월에는 수해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북한 지역에 1.8l 아리수 5만병이 제공됐으며, 2006년 강원도 수해지역에도 제공돼 이재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녹색성장 이뤄야

‘위기의 지구 - 기후변화 대응’ 주제로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보전 유공자 34명에게 정부 포상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제13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6월 5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 주제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하는 환경정책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메시지를 전달코자 ‘위기의 지구 - 기후변화 대응’으로 선정됐다. 기념식은 한승수 국무총리,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각계 인사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념식 치사를 통해 “정부는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기술개발로 적극 대응하고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체제로 바꾸어 녹색성장

을 이룰 것”이라며 “환경성 질환 관리와 수준 높은 환경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인 럭 나카자(Luc Gnacadja)씨가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환경보전에 공이 큰 각계 인사 34명에 대해 포상했다. 이종환 환경재생조형박물관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부산 동래구청 환경미화원 박환배씨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방제활동을 펼친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물의 시대 21세기, 깨끗한 물이 경쟁력!

‘2008년 공동 춘계 학술발표회 및 포럼’에서
‘Water and Culture’ 주제로 특강



한 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Water 르네상스 2008'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2008년 공동 춘계 학술발표회 및 포럼'이 지난 4월 25일, 26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협회장)과 이기수 고려대 총장, 윤주환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김응호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등 학회 회원 및 관계 공무원,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모교행사에 초대된 오세훈 시장은 첫날 학술발표회에서 '물과 문화(Water and Culture)'란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하여 참석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물의 시대 21세기에는 깨끗한 물이 서울의 경쟁력"이라며 미래 물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근에 '물관리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의 가능성과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여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창조하고, 서울의 수도물인 아리수에 대해 철저한 수질관리 등으로 생수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인 수도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물환경학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그간의 물 관리의 노고에 대한 답례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찾아가는 회원서비스로 회원만족도를 높인다

충북 전역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최신 상하수도 정보 교류와 우수사례 공유도 활발히

우리협회에서는 회원간 교류를 강화하고 회원만족도 증진을 위해 금년부터 전국 시·군의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연찬회를 관계 도와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지난 6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시·군의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상하수도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우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물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상수도 우수율 제고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타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특히 상수도 분과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작성 기준 설명과 정수장 운영 및 우수율 제고 사례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수도 분과에서는 하수처리 공법별 현황, 후수처리수 재이용 방안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례 등이 발표되어 참석 공무원들로부터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협회에서는 지난 1월 경기도, 금번 충청북도에 이어, 오는 9월에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